

# 광주상의, 자동차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 본격 추진

올 예산 8억 확보 관련기업 지원 2·3차 협력사 중심 이종구조 개선 신규 채용 장려금·공동시설 운용 '원·하청간 상생협력 강화 기대'

광주상공회의소가 올해 '자동차산업 상생협약 확산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31일 광주상에 따르면 자동차산업 상생협약 확산지원 사업은 광주시와 고용

노동부가 지원하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내 자동차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지원사업이다.

지난해에는 현대·기아 협력업체를 포함한 광주시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의 이종구조 개선을 위해 총 38개사, 238명을 지원했으며,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높은 호응을 얻었다.

특히, 기업의 신규 채용 장려를 통한 고용 창출, 재직자의 근속 유지 강화, 근로

환경 개선을 통한 재직자 만족도 향상 등의 큰 성과를 거둬 사업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이를 통해 올해에도 기업 지원을 위한 8억여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기업들의 애로 및 필요한 지원정책 등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더 많은 자동차 기업들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지원 내용으로는 신규 채용 장려 및 기업의 인건비 부담완화를 위해 신규 근로

자(만35세 이상 59세 이하)를 채용한 기업에게 월 60만원, 연 최대 360만원의 도약 장려금을 지원한다.

또 신규 채용된 근로자의 근속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신규 근로자(만18세 이상 59세 이하)에게 3·6개월 근속 시 각 100만원, 연 최대 200만원의 안착 지원금을 지원한다. 더불어 안정적인 노동환경 조성과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해 공동이용 시설(식당, 화장실, 휴게실 등) 개선 지원과 근로자 건강검진비도 지원한다.

광주상의관계자는 "올해는 사업규모를 확대하는 만큼 지역 주력산업인 자동차산업의 이종구조를 개선하고, 특히 2·3차 협력사 중심의 지원책을 강화할 것"이라며 "간담회, 협의회 등을 통한 원·하청 간 상생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산업 상생협약 확산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자와 기업은 광주상공회의소 협력사업본부(062-350-5894, 5898) 문의하면 된다. **최권범 기자**



**광주신세계, '오크베리 아사이' 선보** 광주신세계가 본관 지하 1층에서 호남권에서는 처음으로 아사이보과 스무디로 유명한 '오크베리 아사이'를 선보인다. 지난 2016년 브라질에서 시작된 오크베리 아사이는 '슈퍼 패스트푸드'를 콘셉트로 미국, 호주 등 40개국 이상에서 만나볼 수 있을 만큼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다. 대표 상품은 '디 오리지널' 1만3500원, '트로피컬 볼' 1만4000원, '망고 맘보' 1만5000원이다. **광주신세계 제공**

## 중기중앙회, 대·중소 상생형 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올해 200개 중소·중견기업 지원 기업당 최대 1억5000만원 규모

중소기업중앙회는 삼성전자와 함께 31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5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도입기업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삼성전자와 함께 2018년부터 7년간 약 1200억원 규모로 2367개사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모델로 정착해 중소·중견기업의 혁신 기반을 마련해왔다.

올해 사업은 △상생형(고도화) 스마트공장 △지자체 연계(기초) 스마트공장 지원 등으로 진행되며 총 213억원 규모로 200여개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상생형(고도화) 스마트공장' 관련해서는 실시간 공장제어 및 설비제어·프로세스 자동화 등이 가능한 '고도화' 수준 구축을 대상으로 총 80개사, 기업당 최대 1억5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작년부터 추진된 '지자체 연계(기초)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은 '기초' 수준의 스마트공장 구축이 절실한 중소기업들을 위해 올해 규모와 예산이 확대됐으며, 10개 지자체와 협업체 총 105개사, 최대 6000만원 또는 8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작년에 참여한 충북, 전남, 광주, 경남, 부산, 전북을 포함해 올해 추가로 강원, 대구, 경북·구미, 포항까지 총 10개 지자체가 참여한다.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는 삼성과 거래관계가 없는 중소·중견기업도 참여가 가능하며, 참여기업

에게는 △삼성전자 현직 전문가(170명)의 제조현장 혁신활동 멘토링(3인 1조, 6~10주 업체 상주근무) △판로개척을 위한 스마트비즈니스포 참가 △삼성 교육 인프라 활용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스마트 365센터를 통한 사후 유지관리 등의 차별화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 삼성이 추진하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은 대·내외의 어려운 경영환경에도 불구하고, 참여기업의 만족도와 성과가 높아 중소기업의 수요가 꾸준했던 사업이다.

'2025년 대·중소 상생형 삼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의 세부내용 및 참여방법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스마트산업실(02-2124-4311, 4313, 4371~3, 4319)로 하면 된다. **박소영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인증중고폰' 판매

삼성전자가 국내에서 '갤럭시 인증중고폰'을 판매한다고 31일 밝혔다.

'갤럭시 인증중고폰'은 온라인 구매 후 7일내 단순 변심, 단순 개봉 등으로 반품된 플래그십 스마트폰 중 철저한 자체 품질 검사를 거쳐 최상위급으로 판정된 제품이다.

'갤럭시 S24 시리즈' 자급제 제품을 시작으로 '갤럭시 인증중고폰' 판매를 시작한다. 향후 시장 수요 및 소비자 요구를 받

영해 제품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기준에 일괄 폐기했던 반품 제품을 새 제품 대비 낮은 가격으로 판매해, 많은 소비자들이 '갤럭시 AI' 최신 기술을 경험할 수 있게 하고, 스마트폰 폐기물도 줄여 순환경제에도 기여한다.

이번 '갤럭시 인증중고폰'으로 판매되는 '갤럭시 S24 시리즈' 자급제 제품은 기존 새 제품 대비 26만~64만원 낮은 가격

으로 삼성닷컴에서 판매된다.

제품별 가격은 △S24 울트라 256GB 130만7900원, 512GB 136만7300원, 1TB 148만6100원 △S24+ 256GB 104만1700원, 512GB 110만1100원 △S24 256GB 88만9900원, 512GB 94만9300원이다.

'갤럭시 인증중고폰'은 새 제품과 동일하게 A/S 보증 기간은 2년으로 제공되며, 삼성케어플러스 중 파손 보장형에 가입이 가능하다.

또, 구매 후 7일 이내 환불이 가능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다. **박소영 기자**

## 광주경총, 임단협 체결 대응전략 설명회

오늘 김대중컨벤션센터서

광주경영자총협회는 1일 오후 2시 김대중컨벤션센터 전시동 2층에서 회원사와 비회원사를 대상으로 2025년 임단협 체결 대응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25년 경제전망과 노동계 요구사항을 살펴보고 지난해 12월 19일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노사관계 불안 요인을 파악해 회원사가 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이다.

강사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지원으로 2025년 경제전망과 임금관련 주요 이슈 주제로, 국내외 경제 동향과 전망, 근로시

간 단축 흐름과 대응방안 등을 알아 본다.

또 2025년 노사관계전망과 단체교섭 주요 쟁점 및 경영계 대응전략, 통상임금 대법원 판례 분석 및 대응전략 등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 및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청년친화 ESG 지원사업, 광주경총 일자리 지원사업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일터혁신 상상컨설팅 지원사업도 안내할 예정이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이번 임단협 설명회를 통해 노사가 효과적으로 상생할 수 있길 바라며, 산업현장의 분쟁과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광주신세계가 오늘부터 본관 2층에서 하이엔드 퍼퓸러리 브랜드 불가리(BVLGARI)의 팝업 스토어를 운영한다. **광주신세계 제공**

## 광주신세계, '불가리 향수' 팝업 운영

광주신세계가 1일부터 본관 2층에서 하이엔드 퍼퓸러리 브랜드 불가리(BVLGARI)의 팝업 스토어를 운영한다. 이번 팝업 스토어에서는 이탈리아의 예술적 감각을 담은 불가리의 스테디셀러 향수 제품들을 직접 경험해 보고 다양한 구매 혜택을 만나볼 수 있다.

마스터 조향사 자크 카발리에가 선보이는 알레그라 컬렉션은 '오드 퍼퓸과 매그니파이 에센스'의 조합으로 자신만의 시그니처 향을 만들 수 있도록 구성된 라인이다.

이번 팝업 프로모션을 통해 알레그라 컬렉션이 제시하는 다채로운 감정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알레그라 컬렉션 제품 구매 시에는 구매 금액 별로 알레그라 오드 퍼퓸 및 매그니파이 에센스의 샘플이 제공된다.

팝업스토어에서는 최근 출시된 불가리의 신제품 또한 만나볼 수 있다. 신제품은

불가리의 첫 남성 향수 라인인 뿌르 움므의 30주년을 맞이해 출시된 뿌르 움므 샤워젤과 다채로운 장미 향을 재현한 로즈골데아 핸드크림이다.

이번 팝업에서 뿌르 움므 샤워젤 구매 시 트래블 파우치를, 로즈골데아 핸드크림 구매 시 샘플 2종을 증정한다.

또 한정 수량으로 스페셜 기프트 패키징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 제품 2개 이상 구매 시 불가리 파우치를 추가 증정하는 등 다양한 프로모션이 준비돼 있다.

1일부터 13일까지는 전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한 럭키 드로우 이벤트도 진행된다.

불가리는 1992년 본격적으로 향수 시장에 진출한 이후 이탈리아 장인 정신과 불가리만의 주얼리 정체성을 바탕으로 '몸에 뿌리는 보석'이라는 칭호에 맞게 감각적인 향수들을 선보여 왔다.

**나다운 기자**